

## 승부차기 '잔인한 롤릿게임'

27일 필름 월드컵 경기장에서 온통 붉은 빛으로 무장한 스위스 팬들이 한동안 스탠드를 떠날 줄 몰랐다.

120분의 사투를 끝나고 스위스를 탈락의 나라로 내몬 것은 상대팀이 자랑하는 '특점 기계' 안드리 셉첸코(AC밀란)도, 자기네 수비진의 실수도 아니었다. '신의 잔인한 롤릿 게임'으로 불리는 승부차기에서 세 번이나 반복된 실축이 그들을 자리에 주저앉게 했다.

유럽 프로무대에서 뛰는 정상급 키커들이 승부차기를 3연속 실축하는 확실적으로 드문 일이다. 그만큼 월드컵 무대에서 나온 승부차기는 키커들의 피를 말렸다.

먼저 2004년 '유럽 최고의 선수'인 우크라이나의 셉첸코가 실축하는 장면이 그랬다.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는 선축팀의 1번 키커로 나선 셉첸코는 여유를 찾지 못

### 스위스 세번 연속 실축 키커들의 긴장감 역력

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와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평정한 그였지만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셉첸코의 슈트는 파위가 실리지 못했다. 볼이 벗어날 것을 우려한 탓인듯 낮게 깔린 킥은 방향을 잡은 스위스 골키퍼 파스칼 추베르빌러(바젤)의 손에 걸렸다.

하지만 스위스 선수들이 세 배는 더 긴장했다. 1번 키커는 마르코 슈트렐러, FC필름에서 뛰는 슈트렐러는 필름 월드컵 경기장이 홈 구장이다. 누구보다 익숙한 그라운

드였지만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셉첸코의 킥과 비슷하게 올렉산드로 슝스키(디나모 키예프)의 가슴팍에 볼을 헌납했다.

스위스 2번 키커도 슈팅에 일가견이 있다는 트라클로 바르네타(레버쿠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바르네타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킥은 강했지만 크로스바를 더 강하게 맞고 나왔다. 바르네타는 새도 모션까지 취하다 주저앉았다.

스위스의 운명을 쥔 세 번째 키커 리카르도 카바나스(FC필름)도 홈 구장에서 어이없이 실축을 하고 말았다. 역시 긴장한 탓에 볼이 너무 낮아 슝스키의 발에 걸렸다. '키예프 함대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올레호 구시예프(디나모 키예프)는 자신있게 뒷걸음질을 친 뒤 그들이 벗어날 듯이 킥을 때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7일 필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스위스의 16강전 승부차기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올레호 구시예프(왼쪽)의 강슛이 스위스 골키퍼 파스칼 추베르빌러(바젤)의 오른쪽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아드보 고별회건 "한국생활 행복"

"한국에서 지낸 9개월은 너무 행복했다"

'작은 장군' 딕 아드보카트(59)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9개월여의 '짧지만 굵었던' 한국생활을 마치고 네덜란드 귀향길에 올랐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7일 서대문구 흥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 지낸 9개월이 즐거웠다"고 밝혔다.

한편에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뷰를 시작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올해 59세로 지도자로서 적지 않은 나이가 됐다"며 "지도자의 마지막 시기를 클럽팀에서 선수들과 하루종일 호흡하기 위해 러시아행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 아드보 얼마 벌었나? 9개월간 14억원

아드보카트는 그동안 얼마를 벌었을까.

그가 국내에서 행진 수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는 급여와 광고 모델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아드보카트는 급여를 비롯해 축구협회와 대신 내주는 소득세 및 주민세, 숙박비, 식대 등을 모두 합쳐 한 달에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단순 계산하면 아드보카트는 9개월 동안 약 9억 원을 협회로부터 받은 셈이다.

아드보카트는 또 삼성전자 디지털 TV 광고와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광고 등 방송 CF 모델로 출연, 이를 모두 종합하면 아드보카트는 9개월 동안 축구협회로부터 9억원, 광고 수입으로 5억원 등 총 14억원 가량을 벌었다.

## 우크라이나, 힘겹게 '알프스' 넘었다

### 스위스전 승부차기 3-0 승...8강 진출

월드컵 처녀 출전국 우크라이나가 승부차기 끝에 스위스를 꺾고 8강에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27일 필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16강전에서 전후반과 연장 120분 간의 사투에서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0로 이겨 힘겹게 8강 행 티켓을 따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일 오전 4시 함부르크에서 이탈리아와 8강전을 벌인다.

옛 소련 붕괴 이후 1992년부터 세계 축구무대에서 등장한 우크라이나는 월드컵 첫 출전에 8강에 오르는 신화를 썼다.

반면 1954년 이후 52년 만의 8강행을 노린 스위스



는 '신의 롤릿 게임'이라는 승부차기에서 1-3번 키커가 모조리 실축하는 불운 속

에 쓸쓸히 짐을 싸들었다. 스위스는 지난 24일 한국전과 같이 알렉산더 프라이, 하칸 야킨 투톱을 내세웠고 우크라이나는 '특점 기계' 안드리 셉첸코를 적진 깊숙이 원톱에 박아 역공을 노렸다.

전반은 양쪽 주도 셉첸코와 프라이가 크로스바를 한번씩 때리는 공방이었고 후반에는 지루한 육박전 뿐이었다.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선축에 나선 우크라이나의 1번 키커 셉첸코가 어이없이 실축을 하자 스위스 관중이 들끓고 일어났다.

그러나 스위스는 1번 슈트렐러의 슈트가 골키퍼에 막히고 2번 바르네타의 킥은 크로스바를 맞았다. 3번 카바나스의 슈트도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우크라이나의 4번 키커 구시예프는 침착하게 볼을 놓고는 숨을 죽인 뒤 골키퍼 반대편 네트를 정확히 갈랐다.

축구협회를 창설한지 14년 밖에 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8강행을 확정짓는 순간은 축포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27일 새벽 필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16강전 스위스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승리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BEST & WORST

#### 김동진·이호 러시아행

##### 1부리그 제니트 구단에 동지

김동진(24·FC 서울)과 이호(22·울산 현대)가 딕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과 함께 러시아 프로축구 1부리그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동지를 옮긴다.

FC서울은 27일 "장기적으로 선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김동진의 이적에 동의했다"며 "김동진은 다음 주 러시아로 출국해 메디컬 체크 등 이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제니트와 정식 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현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니트 구단과 이호의 이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고 이적을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 구단은 김동진과 이호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정해 졌지만 연봉이나 이적료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제니트측 요청에 따라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동진과 이호는 2006독일월드컵에 출전한 K-리그 소속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해외로 이적하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스위스 파상공세 막아낸 '거미손'

▲베스트=올렉산드로 슝스키(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16강 상대 스위스의 파상공세에 고전하고도 8강행 티켓을 거머쥔 수 있었던 데는 골키퍼 올렉산드로 슝스키(31·디나모 키예프)의 역할이 컸다.

스위스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매서운 공격력을 선보이며 슈팅수 12-10, 유효 슈팅수 6-2에서 보듯 공수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골문에는 '거미손' 슝스키가 버티고 있었다. 슝스키는 전반 6분 상대 공격수 하칸 야킨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강하게 찬 공을 몸을 던져 잡아냈다. 이후 수 차례 강슛을 무실점으로 막는 눈부신 선방을 펼쳤고 승부는 연장 접전에서도 가려지지 않자 양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 불운과 부진...승부차기 前 교체



▲워스트=알렉산더 프라이(스위스)

"골대를 맞히는 불운에다 승부차기를 앞두고 교체되는 부진까지..."

G조 조별리그 한국전에서 석연찮은 헤제골을 넣었던 스위스의 스트라이커 알렉산더 프라이(27·렌)는 우크라이나와 16강전에서 불운과 부진으로 가슴을 처야 했다.

스위스가 파상공세로 우크라이나 문전을 위협하던 전반 24분, 상대 수비수의 파울로 왼쪽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프리킥을 얻자 키커로 나선 프라이는 오른쪽으로 발을 내딛고 감아 찼지만 강하게 날아간 공은 모서리 부분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밖으로 사라졌다. 프라이는 이후 후반과 연장 전반에도 이렇다할 슈트를 쏘지 못했고 밀착 마크하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 히딩크 잘 싸웠다

##### 선전 끝 이탈리아에 0-1 석패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 축구대표팀이 27일 오전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열린 이탈리아와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16강전에서 후반 50분 프란체스코 토티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0-1로 패했다. 32년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 처음으로 16강까지 진출했던 호주는 아쉽게 8강행 꿈을 접었다.

후반 6분 마르코 마테라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탈리아는 스위스-우크라이나전 승자와 7월 1일 오전 4시 함부르크에서 4강 티켓을 다투게 됐다.

연장을 준비하던 인저리 타임때 길고긴 90분의 사투가 막을 내렸다. 이탈리아는 후반 3명의 교체 선수를 모두 활용하는 동안 선방 멤버만으로 경기를 끌어가던 히딩크 감독은 후반 36분 미드필더 스티브조브스키를 빼고 공격수 존 알로이지를 내보내며 승부수를 띄웠다. 적절할 선수교체로 호주가 그라운드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운명의 여신은 마지막 순간 이탈리아쪽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